

< 성전보수 기금마련을 위한 기도 >

주님,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시며,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낙후된 성전을 위해,
기도와 정성을 모아,
성전 보수 기금 마련을 준비합니다.
저희의 계획과 수고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협력하며,
이 길을 함께 걷게 하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 의지하게 하소서.
고단한 이민의 삶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안의 평안으로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금을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저희의 정성이 모여,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의 보금자리를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성전보수기금 약정/납부 현황

No	Name	Amount	No	Name	Amount	No	Name	Amount	No	Name	Amount
1	유스그룹	400	27	박재영	1,500	53	오경숙	3,000	79	장수지	1,000
2	성모회	5,000	28	박정훈	1,500	54	오석미	1,000	80	장종현	400
3	Vesta-Oh LLC	5,000	29	박화성	1,000	55	오용운	2,000	81	전광수	1,000
4	강식	1,200	30	방숙자	400	56	오현주 (부제님)	12,000	82	정진오	1,000
5	곽신규	1,000	31	백상현	1,500	57	우성현	1,000	83	조순자	300
6	곽율리안나	200	32	백영숙	1,000	58	우영인	1,000	84	조인	1,000
7	김도용	500	33	변상민	1,000	59	유병기	3,000	85	채희백	5,000
8	김삼식	1,000	34	변상원	1,000	60	육순재	3,000	86	최영옥	1,000
9	김성일	1,500	35	변태용	4,000	61	윤석로 (부제님)	1,000	87	최영찬	2,000
10	김수완	5,000	36	서경호	1,000	62	윤준희	5,000	88	최완준	1,000
11	김순옥	1,000	37	서정근	1,500	63	이기순	500	89	최승웅 (부제님)	5,000
12	김안나	1,000	38	성낙순	500	64	이막동	500	90	최진호	1,000
13	김영필	2,000	39	성낙철	1,000	65	이문식	1,000	91	최현지	2,000
14	김정숙	300	40	성순영	500	66	이보현	1,000	92	추승호	1,000
15	김태경	600	41	성준엽	1,000	67	이성문	1,000	93	토레스 은식	2,000
16	김진	1,000	42	손경진	300	68	이용문	2,000	94	하건철	1,000
17	나채국	1,000	43	손영철	1,000	69	이용범 (신부님)	2,500	95	한상철	1,000
18	나한복	1,000	44	손영수	1,000	70	이재구	1,000	96	한크리스토퍼	1,000
19	문형곤	100	45	손종철	3,000	71	이재서	1,000	97	허종	1,000
20	민병집	2,400	46	손홍구	1,500	72	이종권	1,500	98	황분숙	500
21	박규희	300	47	신준호	1,200	73	이준원	100	99	황태진	1,000
22	박기호	1,000	48	안을봉	1,000	74	이호용	1,000	100	익명1	1,000
23	박덕화	500	49	안청자	500	75	임문수	500	101	익명 2	100
24	박동준	300	50	안현정	1,500	76	임성주	1,000	102	익명 3	20
25	박락준	2,000	51	양영길	1,000	77	임소라	100	103	익명 4	20
26	박병태	1,200	52	염기선	3,000	78	임영자	1,000	104	미국신자 (60)	89,360

약정금액: \$236,800/\$300,000 (78.93%) , 납부금액: \$168,710/\$300,000 (56.24%)

전교 주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2025년
10월 19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화-금 미사전 묵주기도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edisonkcc@gmail.com
근무시간: 수~금
(10:30AM~4:3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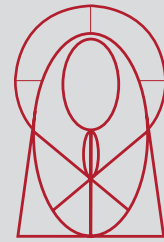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오현주 요한

은퇴/종신부제
최승웅 미카엘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염기선 베드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 이번 주 전례안내 >

제 1독서 이사야서 2,1-5

화답송 시편 98(97).1.2-3 ㄴ.3ㄷ ㄹ-4(© 2 참조)



후렴.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제 2독서 로마서 10,9-18

복음 환호송 마태 28,19.20 참조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복음 마태오 28,16-20

성가 입당 39 봉헌 217, 511 성체 163, 498 파견 63

★ 미사지향 (연미사)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오석건(안토니오) - 가족
- 오용덕(헨리코) - 가족
- 윤재은(베로니카) - 가족
- 성경숙(아가다) - 성안드레아
- 최준혁(베드로) - 최정인(아네스)
- 서경임(비비안나) - 가족
- 최병기(요셉) - 가족
- 최순정(아렐라) - 박정화(요셉)가정
- 한복동 - 변인순(엘리사벳) 요셉회

★ 미사지향 (생미사)

- 염은미(글라라) - 가족
- 김영필(안토니오) - 가족
- 서해리의 건강을 위하여 - 가족
- 육프란치스코와 육글라라 - 성가대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헌금.....\$1,118(113명)
- 2차일헌금.....\$154
- 교무금.....\$1,820
- 박병태(10) 허정(10) 백영숙(9~12) 서정근(9~10)
- 임영자(8~9) 우영인(9~10) 손영수(7~12)

★ 원할한 주보 제작을 위해 미사 지향 신청 및 주보 공지 사항을 매주 수요일로 마감합니다.

★ 모든 친교 후 청소 철저

- 모든 쓰레기통은 비우고 새 비닐백으로 쥘워주세요.
- 재활용통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 재활용 통에는 병, 캔, 깨끗한 종이 만 넣어주세요.
- 바닥 청소
- 마지막 퇴소자는 소등 및 문단속 확인 바랍니다.
- 성당안의 가전제품이나 큰가구를 버릴시에는 반드시 사무실에 미리 상의해주세요.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하건철(안토니오) 김영필(안토니오) 염은미(클라라)
- 곽 율리안나 김삼식(베드로)



★ 2차헌금: World Mission Sunday

★ 10월 빵과 포도주 봉헌

10/19 최라파엘 이카타리나 10/26 오 토마스/로사

★ 친교 봉사 일정

10/19 이스트브런스워 11/16 피스브릿지 12/21 노스브런스워
1/18 릿거스 2/15 먼로 3/15 메타천+N에디슨 4/19 사우스브런스워
5/17 썸머셋 6/21 에디슨 7/19 올드브릿지

★ 로사리오성월(10월 매주 미사 30분전: 묵주기도와 지향)

세째주(10/19일): 모든 아픈이들을 위하여
네째주(10/26일): 믿지않는 이들을 위하여

★ <성교회> 테네시 농작물 주문 받습니다. (담당자 최정원레지나, 917-583-2706)

★ 전례분과 월례회의

일시/장소 : 10월19일(주일) 미사후 / 친교실

★ 연례회 모임

일시/장소 : 10월25일(토) 오후2시 / 친교실

★ 요셉회와 함께하는 2026년도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성지 순례단 모집

일시: 2026년 2월 2일(월) ~ 2월 6일(금) 4박5일

지도신부: 분당 이용범 사도요한 신부님

문의: 곽 엘리사벳(908-420-8386), 이서형 요안나(732-609-2904)



바오로말콘텐츠

<< 과달루페의 성모 >>

★ 제1독서 이사야서 2,1-5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제2독서 로마서 10,9-18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복음 마태오 28,16-20

그때에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옹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묵주기도 성월기도 >

성모 찬송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니다.
하느님, 외아드님이
살과 죽음과 부활로써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